

# 편집 후기



편집계획과 함께 겨울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매서운 한기에 몸을 움츠리며 발길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다.

짧은 해에 바쁜 일정, 일의 진척은 느리고 시간은 빠르니 정신없이 바쁘게 보낸 12월이었다.

제 날자를 지키기위해 노력하였으나 편집내용에 부족한 감을 느끼는 한편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또 다시 다음호를 기약할 수 밖에 없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신년에는 좀 더 모양을 갖춘 알찬 내용으로 「방재와 보험」을 꾸미리라고 다짐하면서 이제 느긋하게 마음을 풀어 놓고 눈 내리는 먼 산을 바라보며 소중했던 기억들을 하나 하나 정리해볼까 한다. 다가온 무진년 새해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하고…….

지난 한해 동안 아껴주신 독자여러분과 집필진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방재와 보험을 접하는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建>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가 변혁기를 맞아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안정을 바라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뜻에 따라 12.16 대통령선거를 무사히 마친 격동의 정묘년이 가고 대망의 희망찬 무진년 새해가 밝았다.

특수건물의 안전점검과 화재보험업무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재난없는 복지사회를 이룩하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협회로서는 새해가 그 어느해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88올림픽을 앞두고 방재측면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는 해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협회에서 취급하는 특수건물이 이제 3 만건을 넘어섰고 최근 산업전반에 걸쳐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더욱 새로와지고 있어 방재역군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함을 느끼게 된다.

평소 협회의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신 특수건물소유주와 방화관계자, 그리고 「방재와 보험」지 애독자 및 집필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한다. <洪>

## 防災와 保險

<통권 제 36호>

1987 / 겨울호  
계간 / 비매품

등록 / 마 - 827 호 (1973년 10월 11일)

발행 / 1988년 1월 1일

인쇄 / 1987년 12월 31일

발행겸 편집인 / 이상규

인쇄인 / 성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창미문화사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 4

편집실 / 직통 782 - 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본지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당 협회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